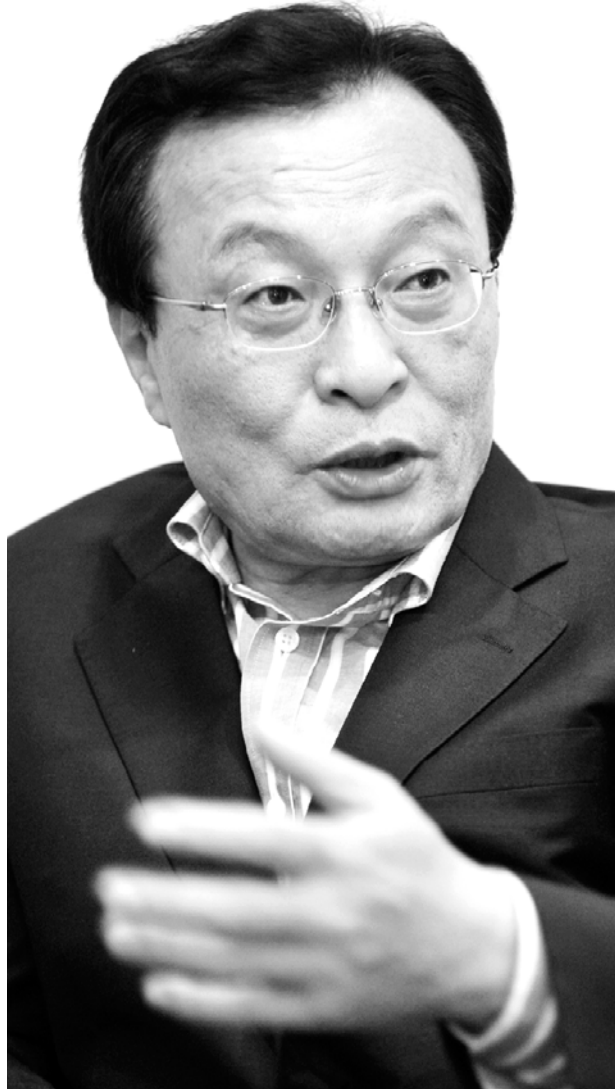


광주 온 민주당권주자 이해찬 전 총리 인터뷰

“민주 대선 후보 선출 후 안철수와 단일화”

요즘 민주당통합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 중 한 사람인 이해찬(60) 전 총리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세종특별자치시)에서 당선돼 당내 최다선(6선) 의원이 된 데다 풍부한 국정·의정 경험으로 6·9 전대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역량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일보도 10일 전남대 특별강연을 위해 광주를 찾은 이 전 총리를 단독으로 만나 민주당통합당의 진로와 대선 등에 관한 입장을 들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4·11 총선에선 모바일 투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 당대회에 전국 선거가 보나 장에 없다. 지난 1·15 전대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둘 것이다. 선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너무 낙관한 것 아닌가.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 ▲과반수 확보는 모르겠지만, 제1당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 쪽은 분열이 있었고, 새누리당은 분열 없이 선거관리를 잘했다. 지지율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선거관리능력면에선 우리 당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 4·11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았는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스스로 혁신하고 중앙당은 이를 엄정 관리하고 자정해야 한다. -아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원장을 둘러싸고 '조기 등판론'과 '민주당 후보 선출 후 단일화' 의견이 분분하다. ▲제 느낌으로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반면,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

호남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면서 광주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민청학련 사건 때는 전남대 출신들과 감옥생활을 함께 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기록을 바탕으로 책도 냈는데, 검찰이 이를 토대로 기소장을 작성할 만큼 5·18 민중항쟁을 사실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다. 사위도 광주 출신일 만큼 인연이 깊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호남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기관이었던 한전 이전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광주·전남에 어떻게 하면 한전을 보낼까 하는 고심을 많이 했었다. 협의 끝에 한전을 유치한 지역에는 '한전+2개 기관' 주기로 결론을 내린 뒤 시·도의 신청을 받았다. 광주시와 울산시 2

참여정부 시절 호남정책 한전 이전 기억에 남아

곳이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울산의 경우 한전이 아닌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다. 울산시장이 다른 기관을 한 곳 더 주변 한전 유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광주시장은 한전 유치 의사를 계속 밝혔었다. 결국, 광주에 한전이 유치됐다. 전남도 다른 기관들을 유치했고, 광주와 전남 접경지역에 '한전+15개 기관'을 한데 묶으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사·도지사에게 말했는데, 현실화됐다. 나중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보면 감회가 새롭다. -차기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며, 새 지도부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4·11 총선 결과는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내 리더십이 약했기 때문이다. 당내 리더십이 약하다 보니, 위기관리 능력도 약할 수 밖에 없었다. 대선은 위기관리능력 이 더 중요하다. 1997년·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대선 기회를 받았는데, 돌발변수가 많다. 위기관리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총선과는 차원이 다르다. 총선은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만 대선은 이기고 지는 문제다. 위기관리능력 이 있는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이해찬-당대표, 박지연-원내대표' 역할분담론을 둘러싸고 '합합'이니, '단합'이니 말이 많았고 원탁회의도 제안한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 진상은 무엇인가. ▲4·11 총선 패배 후 누군가가 나서 당 수습을 해야 하는데,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고향 의원으로서 이를 보고 외면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도 당대표에 출마해 당을 수습해달라는 얘기가 많았다. 박지연 원내대표도 당대표 출마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만나자고 제의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도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동시에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역할 분담을 하자'고 했다. 19대 국회가 중요하다고 보고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국회를 잘 운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로 박 원내대표를 꼽았다. 박 원내대표와는 정권교체 하나만 생각하자고 했다. 이를 비밀리에 부처다면 밀약이 되겠지만 언론에 바로 공개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유권자가 다른데, 답합이 될 수 있느냐. -민주당통합당은 지난 1월 전대에 이어 다음달 전대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났듯 한계

선거관리능력 부족해 4·11총선 패배한 것

단하다.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와 안 원장 간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 경선 때처럼 할 것인지 등 시기와 방법 면에선 긴밀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보진영은 '진보 강화' '중도 강화' 중 어떤 프레임에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념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어떤 정책을 갖고 할 것이냐가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현재 30·40대 가장들의 투표 참여 여부가 대선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아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보의 가치가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공당은 절차와 방법이 투명하고 공경해야 한다. 부실인지, 부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수가 아닌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공적인 대중정치를 하려면 항상 투명한 어항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2월 대선 승리위해 강력한 지도력 필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기자 간담회

이해찬 민주당통합당 상임고문은 10일 “오는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안정된 지도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대 특별 강연자 이날 광주를 찾은 이해찬 상임고문은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바로 선 정당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당 대표 출마를 후회적으로 내비쳤다.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는 엄격히 경선을 거쳐야 한다. 의원들과 위원장 수준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다”며 “여론조사 또는 모바일로 유권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특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안 교수가 민주당과의 성향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민주당이 안철수 교수를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전 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시민과 대학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대선 승리와 새로운 체제 수립을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고문은 이날 강연에서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평화복지 공동체를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 뒤 “현 단계에서 민주당보진영의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 2기’의 출현을 막고 2013년 체제의 문을 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4·11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민주당보진영의 가장 큰 우군인 30대와 40대에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대로 제시 못 해 그들이 투표장에 갈 적극적인 이유를 주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보진영은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남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구심적인 논쟁 구조로 전환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며 “2013년 체제”는 확고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민생과 평화의 과제를 향해 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꿈나무 통장’ 인기

지위대상은 광주시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으로 ▲자녀가 만 13~18세 이하 저소득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자 ▲근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 쉼터 거주자 사회복귀관에서 본인 적립금을 지원 받는 자이며 100명을 우선 선정해 3년간 4억7800만원을 지원한다. ‘꿈나무 통장’에 가입하고 다음달 말부터 저축(매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을 할 경우 만기가 되는 3년 후에는 본인 저축금에 추가로 저축금과 똑같은 금액의 자금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박시설/상가 김광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림팀장 010-9900-3002. 근린주택 박미림팀장 010-9900-3002.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광주대왕(지하)호프, 분식60평원동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게임동 E마트1층1칸, 대출+보증금재후 실인수가 2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에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모텔 및 목욕탕, 고시원, 다가족주택(원룸, 투룸, 소리룸). <토지구함>: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중 집수동, 면적: 200평~300평, 용도지역:지연복지·용도: 주차장,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저택(인간)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지역 2397m(725평) 평당 95만원,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비어있는 자연녹지 11,463m(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황평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직접 www.85858949.co.kr

대인동상업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편과 연일 본 손님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 팔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형 신보점, 대전·충청·전남·전북·전라·제주)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257평, -연건평: 900평, -보증금 4억4천3천만원 / 월2200만원, -용자금: 10억원, -매매가: 38억.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200평, -연면적: 150평,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차임: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29억원. 평등공단 부지매매: -대 지: 3000평, -분할가능, -매매가 상담후 결정. 침탄산단 공장매매: -대 지: 1000평, -공 장: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렌트피어 사거리 010-8289-8549